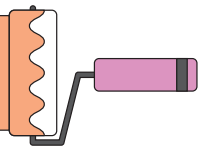


신진작가 예술계 정착 돕고 예술 네트워크 확장

새로쓰는 예향 지리지

<4> 레지던시



**광주서 전국 최초 레지던시 탄생
광주시립미술관 ‘팔각정 창작공방’
지역·해외 작가 교류 시스템 발전
“임대료 부담없이 작업공간 확보”**

작가 레지던시 프로그램은 공모를 통해 선정한 예술가들에게 일정기간 동안 거주 개념을 포함한 작업공간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보통 미술관 등의 예술 창작 기관이나 단체가 운영하며 예술 네트워크를 확장하는 데 목적을 둔다.

이러한 창작공간은 국내에서는 그 역사가 길지 않지만, 신진작가가 예술계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게 돕고 유망주를 가려낸다는 측면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발전을 이어왔다. 이러한 레지던시 형태가 국내

에 처음 등장한 곳은 놀랍게도 광주다. 광주아트센터에서 레지던시는 어떤 모습으로 영향을 미쳤을까?

●국내 첫 레지던시 ‘팔각정 창작공방’
한국에서 최초로 정부 주도로 작가 레지던시가 세워진 곳은 ‘광주’다. 광주시립미술관이 1995년 중외공원 광주비엔날레 본관 근처에 창작스튜디오 형태의 레지던시 ‘팔각정 창작공방’을 운영했다. 이를 시초로 광주시립미술관은 팔각정창작스튜디오(1995~2011년), 양산동창작스튜디오(2004~2013년) 등을 선보이면서 국내 국립미술관 레지던시 사업의 참고사례로 손꼽히곤 했다.

현재 광주시립미술관은 남구 사직길에 위치한 옛 전남여성화관을 리모델링한 청년예술인지원센터(2016~)와 미술관 인근에 있는 국제레지던시(2017~)를 운영

하고 있다. 청년예술인지원센터는 광주의 청년세대 작가들을 대상으로 매년 10여명 안팎의 인원을 선정한다. 지역 청년작가들은 작업을 지속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광주시립미술관의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전문작가로 자생할 수 있는 힘과 정체성을 키운다.

광주시립미술관이 위치한 북구 중외공원 내에 있는 국제레지던시도 1년 단위로 참여작가들을 선정한다. 국제레지던시의 경우 광주작가는 1년간 작업공간을 사용할 수 있고, 해외작가는 국제교류를 통해 2~3개월 단위로 입주해 활동한다. 현재 광주시립미술관은 대만 타이난시, 독일 뮌헨-라이프치히와 국제레지던시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도 예술과 테크놀로지를 기반으로 작업하는 예술가들을 대상으로 ‘크리에이터스 레지던시’를 운영하고 있다. ACC에서 스튜디오를 작업실로 사용하면서 해외 참여자들은 서구 농성동에 있는 숙소에 거주할 수 있다. ACC 레지던시의 경우 단순 미술작업을

넘어 예술과 과학, 기술 등을 매체로 확장된 논의를 이끈다.

올해 광주시립미술관 청년예술인지원센터 레지던시에 입주한 엄기준 작가는 안정적인 작업을 지속할 수 있다는 점을 장점으로 꼽았다.

엄 작가는 “지역 청년세대 작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레지던시가 광주에 7곳 정도 있다. 적지 않은 수인데, 일단 임대료 부담 없이 안정적인 작업공간은 확보할 수 있어 메리트가 크다”며 “레지던시에 참여하면서 작가들, 큐레이터와 교류할 수 있다는 점도 큰 장점이다. 최근 작가들끼리 기획전 ‘2024년 입주예술인전 MIX·혼’을 직접 기획해 선보였는데, 굉장한 경험이었다”고 말했다.

●문화 소외지역 예술 매개로 ‘활력’
광주에서는 민간 영역의 레지던시도 활발히 전개됐다. 대표적으로 광주의 복합문화공간 호랑가시나무 아트폴리곤의 레지던시 프로그램 ‘크리에이티브 스튜디오’가 있다. 옛 선교사 사택을 리모델링한 호랑가시나무 창작소에 해외작가들을 입

주시켜 이들의 창작활동과 교류 네트워크를 돕는다. 광주뿐 아니라 전국 대상으로 레지던시에 참여하는 국내작가를 선정하기도 해 교류의 확장성을 넓혀갔다.

은암미술관은 옛 한옥주택을 리모델링한 레지던시 ‘계림예술창작촌 스튜디오’를 비정기적으로 운영해 왔다. 계림창작스튜디오가 위치한 곳은 구도심 재개발 지역으로 공·폐가가 많은데, 작가들이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통해 오픈스튜디오 워크숍, 결과보고 전시 등을 진행하면서 동네 분위기가 환기되는 효과로 이어졌다.

이외에도 대안공간, 독립큐레이터 그룹들도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이어가고 있다. 대안복합문화공간 산수싸리는 지난해 10년 넘게 비어있던 유휴공간 월산파출소 건물을 리모델링해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했다. 역시 재개발 지역으로 고령인구가 높아 대표적인 문화소외 지역이었던 월산파출소 일대가 예술을 매개로 활력이 생기는 효과로 이어졌다.

도선인 기자 sunin.do@jnilbo.com

“광주는 예술현장이 매우 역동적인 도시”

**인도네시아 ‘위모 암발라 바양’ 작가
광주서 레지던시 프로그램 참여
9월에 호랑가시나무 창작소 입주
양림골목비엔날레 출품 등 혜택
양림동 주제로 사진작업 등 활동**

“광주의 예술 인프라를 가까이에서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예요.”

동남아시아 아트씬의 중심으로 떠오르면서 실험적인 현대미술이 펼쳐진 인도네시아 출신의 젊은 아티스트 위모 암발라 바양(Wimo Ambala Bayang)은 지난 9월 광주에 왔다. 남구 양림동에 위치한 복합문화공간 호랑가시나무 아트폴리곤의 레지던시 프로그램 ‘크리에이티브 스튜디오’에 참여하면서다. 위모 작가는 옛 선교사 사택을 리모델링한 창작공간 호랑가시나무 창작소에 입주해 오는 11월 2일까지 광주의 예술적 영감을 받으며 여러 작업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위모 작가는 인도네시아에서 미술도시로 알려진 족자카르타에 머물면서 자국의

얕힌 신화, 역사, 풍경을 모티브로 사진작업을 선보여 ‘유망한 젊은 작가’로 주목받았다. 한국에서도 몇 차례 기획전에 참여하면서 소개된 바 있지만, 레지던시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한국에서 장기간 머물게 된 것은 광주가 처음이다.

위모 작가는 “인도네시아에서 머물 때, 인연을 맺었던 광주 기획자, 작가들의 소개로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알게 됐다”며 “호랑가시나무 창작소 인근의 조용한 숲과 언덕에서 작업을 지속하는 것 자체가 새로운 예술적 영감을 주고 흥미로운 경험이다”고 말했다.

호랑가시나무 아트폴리곤은 매년 국내외 작가 10여명을 선정해 레지던시 프로그램 ‘크리에이티브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다. 해외 작가들에게는 △항공료 △체류비 △입주 및 작업공간 △전시회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들은 최장 3개월 동안 호랑가시나무 창작소에 머물 수 있다.

지난 2013년 겨울 호랑가시나무 창작소에서 레지던시 프로그램 ‘크리에이티브 스튜디오’가 시작된 이래, 국내외 통틀어 120여명의 아티스트가 이곳을 거쳐 갔

다. 국립미술관 사례를 통틀어서 10년 넘게 해외 레지던시 프로그램이 이어져 온 것은 국내에서 유일하다. 레지던시 참여 한국 작가들을 비롯해 다양한 나라의 아티스트와 교류하며 광주의 아트씬을 다채롭게 한다.

광주에 대해서는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다채로운 아트씬이 펼쳐진 ‘족자카르타’와 비슷하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특히 광주비엔날레가 열리고 있는 기간에 방문하게 돼서 예술현장이 매우 역동적이라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 같다. 대중들은 상시적으로 전시, 공연 등을 관람하고 뿐만 아니라 도서관·영화·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 같다”며 “때문에 문화예술과 관련한 정부 지원 인프라가 풍부하다고 생각했다. 이는 인도네시아에 필요한 부분이다”고 말했다.

위모 작가는 현재 호랑가시나무 창작소에 머물면서 양림동 풍경을 기록한 ‘필름 스틸(FILM STILL)’이라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준비 중이다. 양림동의 주택가, 식당가, 술집 등 거리를 렌즈를 통해 포착



인도네시아 출신 위모 암발라 바양 작가가 호랑가시나무 창작소에 머물면서 진행한 사진작업 ‘필름 스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하고 사진을 마치 영상처럼 연출하는 것이다. 미디어 화면에는 양림동 풍경을 보며 작가의 사유가 자막으로 나와 익숙한 듯 생소한 감상을 이끈다.

이 프로젝트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제3회 양림골목비엔날레 ‘Connecting Way(커넥팅 웨이)’의 출품작으로 오는 22일 차고갤러리(남구 제중로 47번길 11)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현재양림골목비엔날레 기간 차고갤러리에서는 호랑가시나무 창

작소 출신 작가들의 개인전이 릴레이로 이어지고 있다.

위모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양림동을 기록한 ‘필름 스틸’과 함께 인도네시아 풍경도 함께 선보일 것”이라며 “양림골목비엔날레에서 내 작품이 소개돼 영광이다. 올 하반기 광주에서 이어지고 있는 미술 축제에 일원이 된 것 같아 기쁘다. 광주 관객들이 많이 기대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글·사진=도선인 기자

ACC 테마강좌 ‘예술로 아랍문화를 경험하다’

8~17일 전시연계 강좌 마련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은 ‘아랍문자, 예술이 되다’ 전시 연계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오는 10월 8~17일까지 ‘ACC 테마강좌-예술로 아랍문화를 경험하다’를 운영한다.

‘아랍문자, 예술이 되다’는 지난 8월 22일 개막해 현재 열리고 있는 ACC 아시아문화박물관 기획 전시로 이슬람 문양을 대표하는 아랍문자 캘리그래피(옛 글씨) 문화를 소개한다. 특히 이번 ‘ACC 테마강좌’는 ‘아랍문자, 예술이 되다’와 연계해 시민들이 아랍문자와 아랍문화를 보다 친근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자 마련됐다.

강좌는 △전시 기획자와의 만남 △아랍문자 주제 강연 및 간단한 체험활동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문화정보원B4 문화교육실5에서 총 5회 진행된다.

먼저 10월 8일에는 전시를 기획한 ACC 이혜규 학예연구사가 ‘아랍 문자가 예술이 되기까지’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눈다. 이 연구사는 전시 기획과정 전반을 비롯해 자료 수집 과정, 외부 전문가와의 협업 과정 등 전시에 담지 못한 숨은 이야기를 준비해 전시 이해에 재미를 더한다.

이어 10월 15~17일에는 황의현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선임연구원이 ‘아랍 캘리그래피를 통해 전시 경험하기’를 주제로 아랍문자 주제 강연(아랍문자 소개, 발전과정, 서체소개, 종교와 문자예술, 아

랍문자와 시각예술 등)을 펼친다. 또 이날 교구재를 활용해 간단히 아랍문자 캘리그래피를 체험해보는 시간을 갖는다.

황 선임연구원은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아랍어를 전공했으며 동대학원에서 석·박사학위를 취득한 아랍문화연구자로 현재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서아시아센터에서 선임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다. ‘아랍의 봄 그 후, 10년의 흐름’, ‘대체로 무해한 이슬람 이야기’ 등 다수의 저서를 통해 이슬람 문화를 대중적으로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참여 신청은 ACC 누리집(www.acc.go.kr)에서 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ACC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도선인 기자

수학과 예술의 만남… 매스아트 전시회

내일부터 국립광주과학관

국립광주과학관은 오는 8일부터 27일까지 국립광주과학관 상설전시관 1층에서 수학과 예술이 융합된 ‘제6회 매스아트(Math Art) 작품공모전 수상작 전시회(사진)’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에서 구조물, 그림, 영상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엄격한 작품 심사를 통해 선정된 수상작들을 선보인다. 올해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한 ‘구슬 반가산기’ 등 총 11점의 작품들을 비롯해 매스아트 구조물(프랙탈 트리)과 해외 유명 매스아트 작가 작품들도 함께 관람할 수 있다.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한 ‘구슬 반가산기’ 작품은 컴퓨터의 비트 연산 중 두비



트를 더하는 반가산기를 전기 대신 구슬과 트랙을 이용해 구현하는 아이디어를 통해 제작한 수학 구조물이다.

‘제6회 매스아트 작품공모전 수상작 전시회’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립광주과학관 누리집(https://www.sciencecenter.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도선인 기자